

BTCC “신규 유저 한정”

BTCC에 가입 및 입금하고 최대 17,500 USDT를 받으세요!
친구 초대 시 더 많은 리베이트 획득 가능

지금 가입

미 연준, 기준금리 0.25%p 또 인상…한미 금리차 1.75%p

원문:

<https://www.btcc.com/ko-KR/academy/financial-investment/fed-raises-interest-rate-by-0-25p-again>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3일(현지시각)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르면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인 1.75%포인트(p)까지 벌어졌다. 하지만 다음 차례에는 10차례 연속된 인상 행진을 멈추고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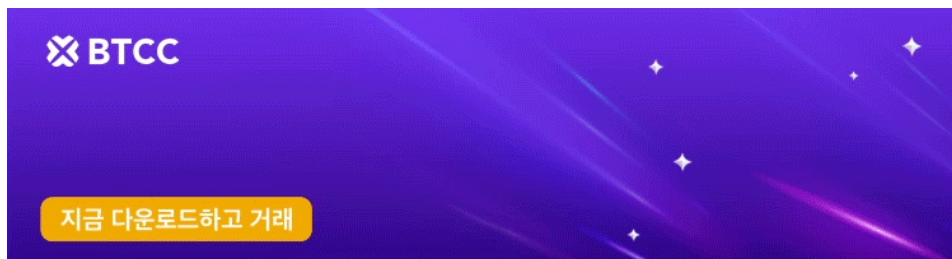


미 연준,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2~3일(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예상대로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4.75~5.00%에서 5.00~5.25%로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다.

실리콘밸리은행(SVB)·시그니처은행·퍼스트리퍼블릭은행(FRC) 등의 잇따른 파산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대응 차원에서 3회 연속 0.25%p 인상을 택했다.

연준이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베이비스텝을 단행할 것은 유력시 돼왔다. 연준 선호 물가지수인 3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4.6%로 시장 전망치를 소폭 상회하며 미 인플레이션이 쉽사리 잡히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안드로이드 버전 다운로드](#)

[iOS 버전 다운로드](#)

[신규 유저 한정 이벤트\(입금 및 거래 시 10,055USDT 보상\) <<<<](#)

금리인상 행진을 멈출 가능성 있나?

연준은 여전히 높은 물가 상승률에 대응해 다시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연준은 이날 성명서에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던 ‘추가적인 긴축이 적절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연준 성명서에서 앞으로 인상 행진을 멈출 가능성을 시사했다. 연준의 이번 성명에는 지난 몇 차례 성명에 등장한 “물가 상승률을 2%로 되돌리기 위해 충분할 정도로 제한적인”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표현이 빠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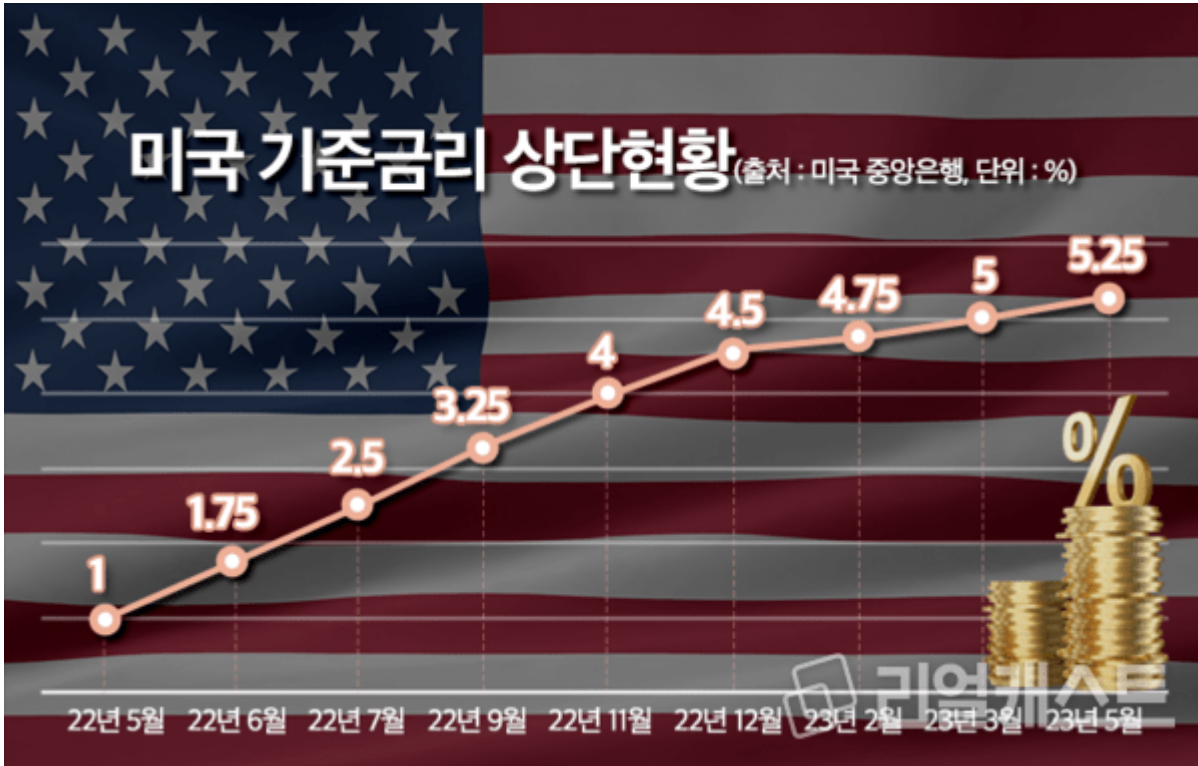
대신 “물가 상승률을 시간을 두고 2%로 되돌리는 데 적절한 정책 조정이 어느 정도일지를 결정”하기 위해 기존 기준금리 인상의 효과와 물가 동향,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연방공개시장위는 3월 회의 때도 잇따른 은행 파산을 이유로 기준금리 동결을 고려했지만 인플레이션을 누를 필요가 여전히하다는 판단으로 0.25%포인트 인상이라는 ‘베이비스텝’을 밟은 바 있다. 그러나 물가 상승 속도가 다소 진정됐고, 급격한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연준은 2022년 3월 제로 금리를 끝낸 이래 이번까지 10차례 기준금리를 올려 16년 만의 최고 수준으로 만들었다. 이런 인상 속도는 1980년대 이래 가장 가파른 것이다.

금리 인하 여부에 대해서는 “연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는 올해 금리 인하를 지지하기 않는다”며 “인하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14개월 동안 5%포인트를 올렸는데 실업률은 오히려 지난해 우리가 인상을 시작할 때보다 낮고, 금리 인상이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며 물가가 충분히 빠르게 내려가기 힘들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 때문에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 시그널에 상승하던 미 뉴욕증시는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 일축에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연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카고상품거래소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선물 투자자들은 6월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69%, 인하할 가능성을 30% 가량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미 금리차 1.75%p, 역대 최대



이날 연준의 베이비스텝으로 한국(3.50%)과 미국(5.00~5.25%)의 기준금리 격차는 1.50~1.75%p로 벌어졌다. 1.75%p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최대 한·미 금리 역전 폭이다.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국제 결제·금융거래의 기본 화폐)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크게 낮아지면,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커진다.

특히 최근 1,300원 선을 넘어선 환율이 금리 격차 등의 영향으로 더 떨어질 경우, 한은도 추가 금리 인상을 심각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원화가 절하(가치 하락)될수록 같은 수입 제품의 원화 환산 가격은 높아지는 만큼, 힘겹게 정점을 지난 물가에 다시 기름을 부을 수도 있다.

이미 지난 2월과 4월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금융통화위원 5명은 “3.75% 기준금리 가능성까지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관련페이지:

[미 연준, 금리 0.25%p 인상...파월“연내 인하 없다”, 한미 금리차 역대 최대](#)

[한은, 기준금리 연 3.5%로 동결...올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까?](#)

[미 연준,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파월 “긴축 유지 해야”](#)

[한은, 기준금리 3.50%로 0.25%p 인상...금리인하 예상 시기는?](#)

[미 연준, 기준금리 0.5%p만 인상...단 금리 인상 지속 예고](#)

[파월 연준의장, 12월 금리인상 속도조절 시사...비트코인 경총](#)

[미 연준, 0.75%p 금리인상...4 연속 자이언트 스텝, 위험자산 급락](#)

더 많은 내용은 [BTCC 뉴스](#) 및 [BTCC 아카데미](#)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BTCC 가입혜택(한정 이벤트)

BTCC는 신규 유저들을 위해서 가입하면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지금 가입하면 **26일** 이내에 입금액 대비 **최대 15,000USDT**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0USDT**를 입금하시면 바로 **VIP 1**로 될 수 있습니다. **VIP**가 되면 거래 수수료 할인 또 다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BTCC 가입하고 보너스 받으세요](#)

BTCC 거래소

- 12년 보안 무사고
- 암호화폐 라이선스를 획득한 믿음직한 거래소
- 전세계 규제 준수
- 세계 최저 수수료 **(0.03%)**
- 최대 **150배** 레버리지 제공
- 선물 거래량 기준 세계 **5위**
- 무료 모의 거래 가능
- 풍부한 유동성 및 오더북
- 토큰화 주식 및 암호화폐 출시
- 원화입금 지원
- 24x7 시간 한국어 고객센터 제공
- 최신 시장 동향 및 투자 교육 제공
- PC/모바일 거래 가능
- 다양한 이벤트

핫한 암호화폐 소개:

[비트코인캐시\(BCH\)란? 비트코인캐시 시세, 호재 및 전망 분석](#)

[연파이낸스\(YFI\)란? 연파이낸스 전망 및 YFI 코인의 유동성 채굴 살펴보기](#)

[옵티미즘\(OP\) 코인 란? OP 코인 전망 보기...아비트럼\(ARB\)와 차이는?](#)

[갈라 코인\(GALA\)이란? 갈라 코인 가격 전망 2023](#)

[프로젝트 갤럭시 \(GAL\) 코인 란? GAL 코인 용도 및 미래 전망은?](#)

[알케미페이\(ACH\)코인 란? ACH 코인 용도 및 향후 전망은?](#)

[신세틱스\(SNX\) 코인 란? SNX 코인 용도 및 향후 전망 살펴보기](#)

[메저러블 데이터 토큰, MDT 코인이라? MDT 코인 향후 전망은?](#)

[어드벤처골드\(AGLD\) 코인 란? AGLD 코인 향후 전망 및 시세 분석](#)

[베이비 도지코인이라? 일주에 100% 이상 급등...미래 전망은?](#)